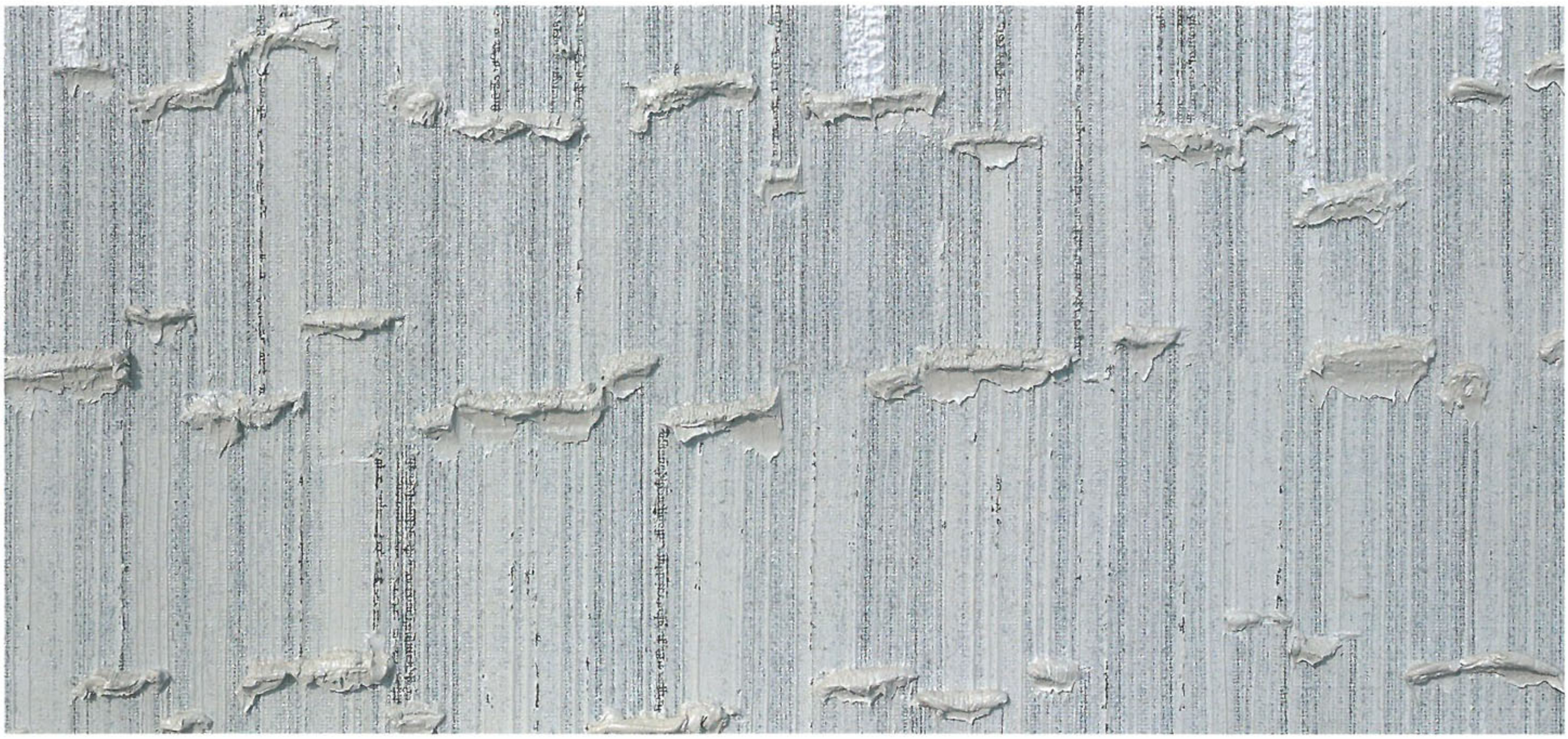
art price

새로운 미술경제지 vol.122 2015. 10



단색화

열풍인가 광풍인가

가격 10,000원
10
9 771739 015009
ISSN 1739-015X

2008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잡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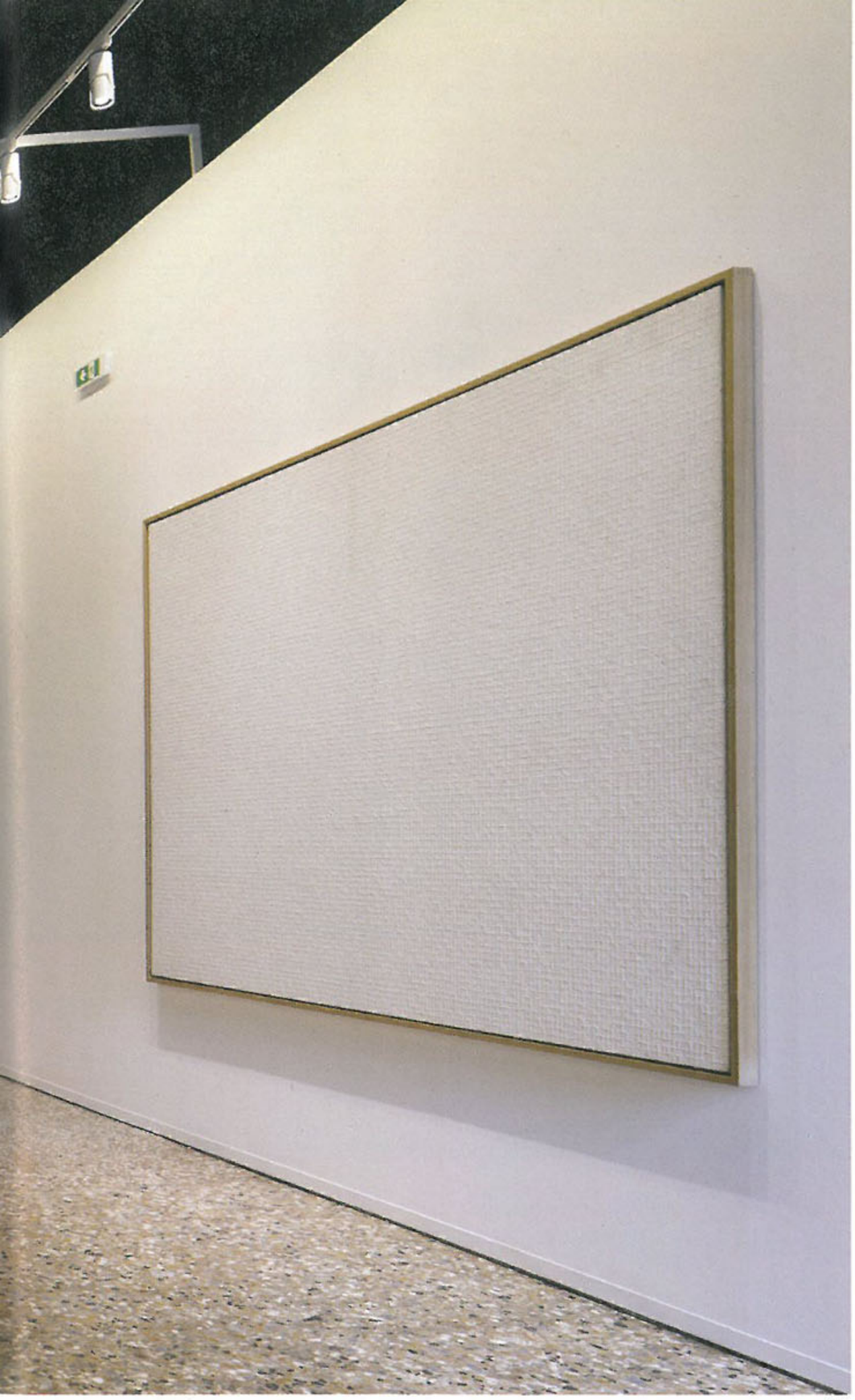
01

한국의 단색화는 무엇인가?

최근 들어 국내외 미술계에 급격히 부상되고 있는 '단색화(Dansaekhwa)'는 기실 그 연륜을 따지면 무려 40년을 넘어선다. 이는 불과 3년 전만해도 꺼져가는 불씨에 불과했으나, 가까스로 기사회생하여 한국 현대미술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성장하는 중에 있다.

그렇다면 단색화는 어떻게 그토록 짧은 기간에 세계인의 주목을 받게 되었는가? 거기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한국의 단색화가 지닌 고유의 특질을 들 수 있다. 서구의 미니멀리즘이나 미니멀 아트와는 현격히 다른 어떤 '질'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집필 목적이다. 서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어떤 '질', 예컨대 한국 고유의 정서와 역사, 그리고 사유체계에서 비롯된 미적 특질이 그 안에 내재돼 있다고 상정하고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밝혀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단색화가 태동된 1970년대의 미술계를 둘러싼 제반 여건과 상황을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현대사에서 1970년대는 '희망'과 '절망'이 공존한 시대였다. '희망'이란 근대화 정책을 통해 한국이 전례 없이 눈부신 경제적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시기요, '절망'이란 그러한 경제적 도약의 이면에 목표 달성을 위한 인권의 탄압이 상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단색화는 이처럼 희망과



01

절망이 혼재하던 시기에 탄생한 '이념의 독자(獨子)'였다. 서구에서 발원한 다양한 미술사조들의 범람 속에서 독자적인 '미적 가능성'을 잉태한 그것은 당대의 미술제도에 힘입어 70년대를 통해 번창해 나갔다. 그것은 당시의 미술계 상황에서 '전위' 혹은 '현대미술'의 동의어로 간주되었다. 고답적인 [국전]의 위세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던 그 무렵, 단색화는 생소한 회화적 개념과 문법으로 인해 대중은 물론 심지어는 미술인들마저도 이해하기 어려운 미술사조로 치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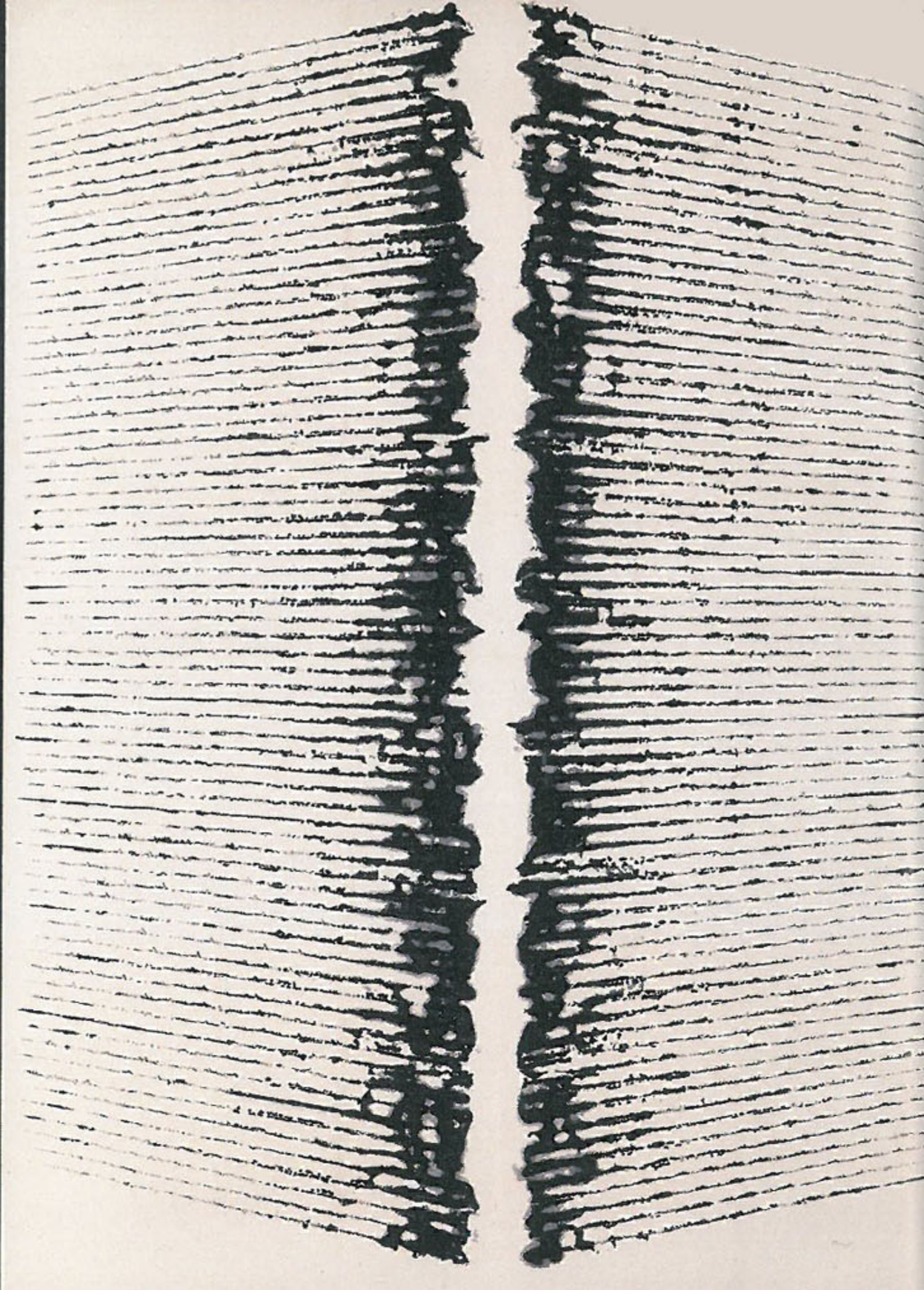
한국의 단색화는 '마음의 예술'이다. 그것은 물감이란 물질을 매개로 화가의 마음이 캔버스에 스며들면서 이루어지는 시간의 축적의 결과물이다. 그 과정에서 단색화 특유의 '발효의 미학'이 탄생한다. 한국의 단색화 가운데서도 특히 김기린, 박서보, 윤형근, 이동엽, 정상화, 정창섭, 최병소 등의 작품은 오랜 시간 동안 국물을 고는 가운데 특유의 맛을 자아내는 한국의 독특한 '탕(湯)' 문화를 연상시킨다. 설렁탕과 곰탕으로 대변되는 한국의 탕 음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간성인데, 이는 같은 행위의 무수한 반복을 통해 특유의 화면 질감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의 투여가 이 작가들 작업의 제작적 특징이라는 사실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한지를 20여 차례에 걸쳐 캔버스에 바른 뒤 다시 그 위에 검정색 물감을 바르거나 스프레이로 도포(塗布)하는 김기린의 행위, 엷은 톤의 회색이나 베이지 색 물감을 바르고 물감이 마르기 전에 연필로 일정한 형태의 빗금을 긋는 박서보의 행위, 묽게 희석시킨 다색과 청색 물감을 캔버스의 아사 천에 반복적으로 칠해 스미게 하는 윤형근의 행위, 캔버스에 흰색을 칠한 뒤 반복적으로 붓질을 가해 회색 톤의 아련한 자취를 드러내는 이동엽의 행위, 캔버스에 격자를 만든 뒤 물감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유사한 색의 물감을 채워 넣는 정상화의 반복적인 행위, 물에 푼 닥(楮)을 눕혀진 캔버스 위에 놓고 손으로 자작자작 매만져 추상적 형태를 만드는 정창섭의 행위, 신문지에 볼펜으로 무수한 선을 긋고 그 위에 다시 연필로 선을 반복적으로 그어 종이를 새카맣게 만드는 최병소의 행위 등에서 시간성은 절대적인 요소이다. 대부분의 한국의 탕 음식이 시간과 불의 세기 조절에 따라 성패가 갈리듯이, 단색화 역시 시간의 투여 내지는 작가의 행위와 호흡의 조절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만드는 이의 마음이다. 유교의 근본정신인 성실함, 즉 '성(誠)'이 주요한 덕목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다.

설렁탕의 국물을 고을 때 완성의 타이밍은 만드는 이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경험의 총화이다. 오로지 경험에 의지하여 '마음'으로 끝낼 시점을 읽는 것이다. 그것은 물질을 통해 이루어지되, 궁극적으로는 물질을 초월한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단색화를 정신 작용의 결과로 보는 이유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서구의 모노크롬 작가들, 즉 캐시미르 말레비치를 비롯하여 이브 클랭, 그리고 애드 라인하르트 등이 동양에서 영향을 받아 그들 나름의 정신성을 강조한 것은 매우 일리 있는 일이다. 이는 로버트 모리스를 비롯하여 도널드 저드, 솔 르윗, 칼 안드레와 같은 미니멀리즘 작가들이나 아그네스 마틴과 같은 미니멀 아트 작가들이 격자 구조를 통해 분석적이며 과학적인 합리적 이성의 세계관을 보여준 것과 대조된다.

한국의 단색화와 관련시켜 볼 때, 탕(湯)을 중심으로 한 한국 음식문화의 특징과 유사한 사례로는 한국 고유의 축성술(築城術)을 들 수 있다. 한국 고유의 성 쌓기의 특징은 자연석을 연상시키는 돌의 형태와 그 사용에 있다. 그것은 서양의 반듯하게 다듬어진 돌의 축적 및 배열이나 일본의 견치석축(犬齒石築)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 서로 맞물린, 일종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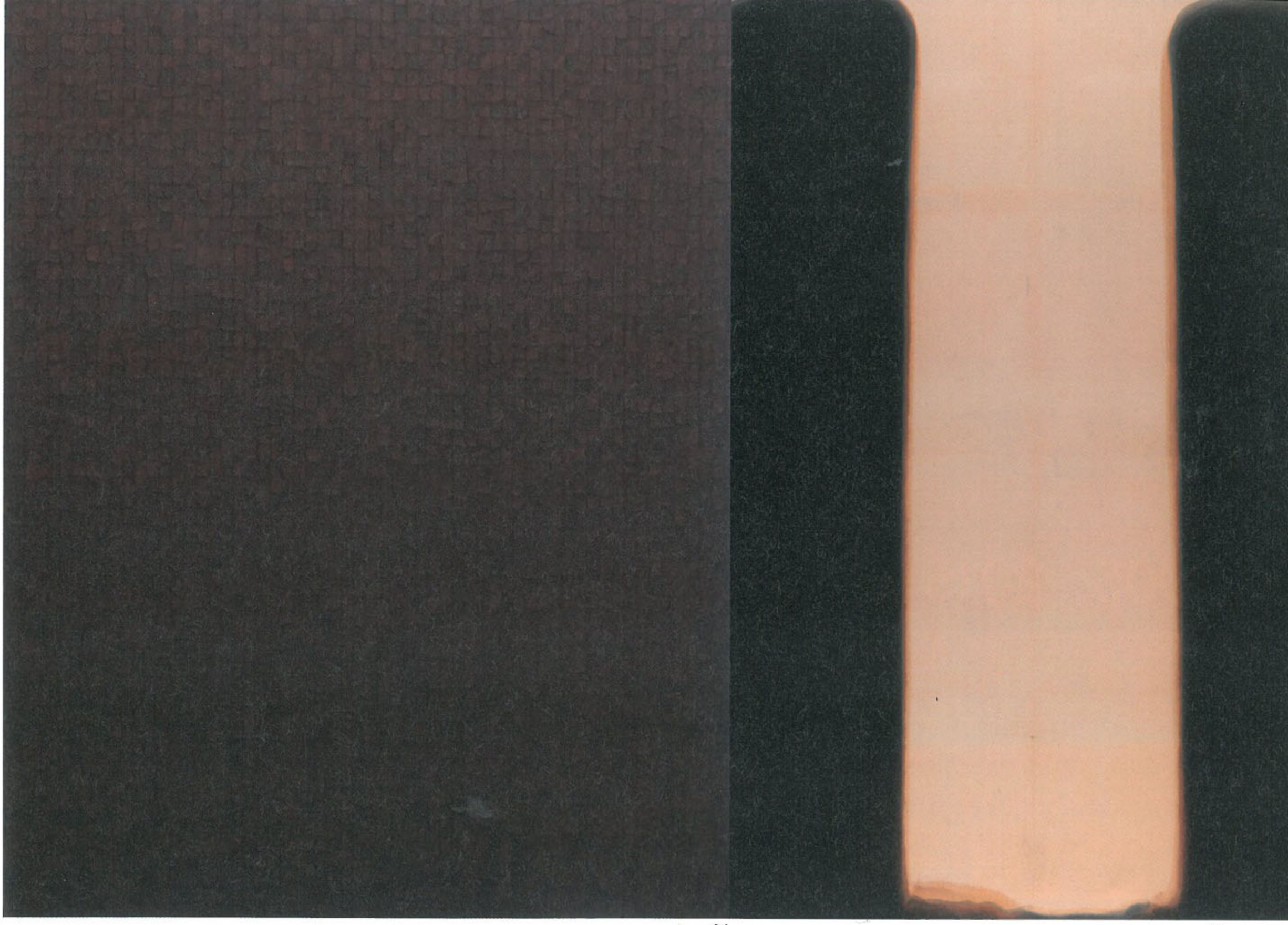


03

01 2015 베니스비엔날레 특별전 「Dansaekhwa」 전시전경 ©Photo: Fabrice Seixas, Image Provided Kukje Gallery
02 박서보 〈Ecriture No.990118〉 160×130cm Mixed media with Korean Hanji paper on canvas 1999 ©Photo: Jason Bonello, Image Provided by Kukje Gallery
03 권영우 〈Untitled〉 224×170cm Gouache, Chinese Ink on Korean paper 1986 ©Photo: Jason Bonello, Image Provided by Kukje Gallery
04 정상화 〈Untitled 96-5-21〉 117×97cm Acrylic on canvas 1996 ©Photo: Kim Sang Tae, Image Provided by Kukje Gallery
05 윤형근 〈Umber-Blue〉 280.5×184cm Oil on cotton 1978 Courtesy of Yun Seong-ryeol and PKM Gallery

의 모듈에 근거하여 성을 쌓는 기법은 이성적이며 기계론적 사고의 반영물이다. 그것은 일이 끝나는 시점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 이는 마치 프랭크 스텔라의 초기 줄무늬 회화가 붓이 지나가는 지점을 정확히 획정(劃定)함으로써 작품의 끝나는 시점(時點)이 예측가능한 것과 유사하다. 즉, 프랭크 스텔라의 줄무늬 회화에서 양쪽 줄 사이의 공간은 단지 붓이 지나가는 통로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조선시대의 전통적인 성벽쌓기는 자연석에 가까운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공사장의 장인(匠人)은 적당한 크기와 형태의 돌을 골라 최소한으로 가공, 이를 서로 잇대서 성을 쌓는다. 일하는 과정에서 장인은 돌과 한 마음이 된다. 장인은 방금 놓은 돌의 모양에 알맞은 다른 돌을 골라 전체적인 형태를 고려하면서 성을 쌓는다. 조선시대의 성 중에서 어떤 부분은 배불뚝이처럼 튀어나와 굽었으면서도 오랜 세월을 버틴 것은 장인의 정성과 마음이 성 쌓는 일에 스며들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성벽을 접한 한 서양인의 소회가 다음의 글에 잘 드러나 있다.

"파이드로스가 한국에서 보았던 성벽은 기술 공학적 행위의 산물이었다. 아름다웠지만, 이는 노련한 지적 기획 때문도 아니었고, 작업에 대한 과학적 관리 때문도 아니었으며, 그 성벽을 '멋들어지게' 하기 위해 과외로 지출한 경비 때문도 아니었다. 그것이 아름다웠던 것은 그 성벽을 쌓는 일을 하던 사람들이 대상을 바라보는 나름의 독특한 방식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초월적인 상태에서 그 일을 제대로 하도록 자신들을 유도하는 방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그런 방식으로 그들 자신과 일을 따로 분리하지 않음으로써 일을 그르치지 않았던 것이다. 총체적인 해결책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존재한다."



04

05

전기(1세대) 한국의 단색화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자기초월성은 서양의 합리적인 이분법적 구조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것이다. 서양 미니멀리즘을 낳은 합리적 세계관의 요체는 시선을 통한 타자화(他者化)이다. 그것은 원근법을 통해 구체화되었으며 서양의 제국주의를 추동한 요인이었다. 주관과 객관의 분리를 골자로 한 데카르트의 코기토(cogito), 즉 이성이 지배하는 합리주의 정신은 원근법과 함께 '근대성(modernity)'의 개념을 낳아 신이 지배하던 중세와는 다른 신문명의 패러다임을 열었다.

"화이트헤드가 말한 것처럼 유럽 철학이 플라톤에 대한 각주라면, 근대 유럽 철학은 데카르트에 대한 각주"라는 레젝 콜라콥스키의 말처럼, 근대는 확실성에 토대를 둔 이성의 시대였다. 서양의 미니멀리즘은 이러한 이성의 자식이자 합리주의 정신의 열매이다. 반면에 한국의 단색화는 양자를 아우르는 감성의 자식이자 한국적 자연관의 열매인 것이다. 한국의 단색화가들이 70년대 초에 평면성의 개념, 즉 '미적 모더니티(aesthetic modernity)'를 수용하여 여기에 '자기초월의 미학'을 덧붙이는 가운데 특유의 단색 미학을 펼쳐나갔던 것은 곧 이의 구체적인 발현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초중반에 이르는 시기에 한국 현대미술에서 '질'의 문제를 작품 제작의 요체로 삼았던 사조는 단색화가 유일하다. 사실주의 회화, 가령 하이퍼리얼리즘은 화면 속에 담긴 내용이 실제 대상과 얼마나 닮았는가 하는 유사성의 문제를 과제로 삼았고, 개념미술(Conceptual Art)이 작품에서 개념의 문제를 화두로 삼았던 반면, 단색화는 오로지 작품의 질을 문제시했다. 당시 단색화 작가들의 이러한 사고의 이면에는 작품의 성패를 오직 '질'에서 찾을 수 밖에 없는 어떤 절박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것은 어느 측면에서 보면 모더니스트 페인팅(Modernist Painting)의 비평적 기준(critical criteria)을 질에서 구했던 클레멘트 그린버그의 입장과도 통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한국의 단색화 작가들이 추구해마지 않았던 회화적 질은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추사 김정희의 '서권기문자향(書卷氣 文字香)'의 정신과도 통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김기린, 박서보, 윤형근, 정상화, 정창섭 등 1세대 단색화의 작품에서 검출되는 미학적 특징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수기치인(修己治人)'의 정신을 내면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글 윤진섭(미술평론가/시드니대학교 미술대학 명예교수)

※이 글은 필자가 최근에 쓴 '1970년대 한국 단색화의 태동과 전개'에서 일부 인용한 것임을 밝혀둠. 필자 주

단색화 주요 이슈 및 전시 연보

단색화의 성장 포인트가 되었던 주요 이슈와 전시들을 시기별로 살펴본다.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1972.8.1~8.15

〈제1회 앙데팡당전〉 경복궁 국립현대미술관

1972년 한국미술협회가 각종 국제미술전에 나갈 작가를 선발하기 위해 '제1회 앙데팡당' 전을 열었다. 이 전시에서 이동엽, 허황의 백색 단색화 작품이 발표되었고, 일본 동경화랑 대표 야마모토 다카시의 찬사를 받아, 1975년 〈다섯가지 흰색전〉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됨.

1973.2.17~3.4

〈한국현대미술 1957~1972〉 명동화랑, 서울

참여작가: 권옥연, 김영주, 김정숙, 김종학, 김찬식, 김창렬, 김형대, 남관, 박서보, 박종배, 윤명로, 이종각, 전상범, 전성우, 정창섭, 정영열, 조용익, 최기원, 최만린, 권영우, 김구림, 김차섭, 박석원, 서승원, 심문섭, 엄태정, 이강소, 이건용, 이동엽, 이반, 이승조, 최명영, 하동철, 하종현, 허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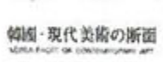
1992.4.8~6.21

〈자연과 함께(Working with Nature)〉 테이트갤러리, 리버풀

참여작가: 정창섭, 윤형근, 김창렬, 박서보, 이우환, 이강소

2012.3.17~5.13

〈한국의 단색화〉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국내에서 재조명 시작.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한국의 단색화'를 전기, 후기로 나누어 집중 조명하는 전시를 국내 최대 규모로 개최함. 이 전시에서 'Dansaekhwa'라는 영문 고유명사로서의 단색화를 정의했다.

2014.2.19~3.29

〈Overcoming the Modern〉 Alexander Associates gallery, 뉴욕

외국의 화랑에서 최초로 'Dansaekhwa'란 용어를 사용한 전시. 정상화, 하종현, 허황, 이동엽, 이우환, 박서보, 윤형근 등의 작품을 소개했다.

2015.5.8~8.15

〈Dansaekhwa〉 팔라쪼 콘타리니-폴리냑, 베니스

참여작가: 김환기, 권영우, 박서보, 이우환, 정상화, 정창섭, 하종현
세계 3대 비엔날레 중 하나인 베니스비엔날레의 병렬전시로 기획되어 한국의 단색화를 조망, 국제적인 인지도를 굳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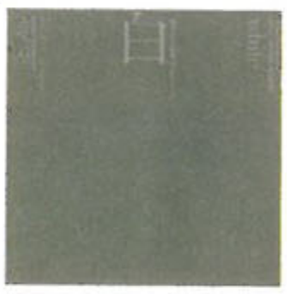
1972.9.23~9.29

백색동인회 창립전 〈백색전〉 명동화랑, 서울

참여작가: 김주영, 이원화, 이종남, 엄희옥, 여명주

1975.5.6~5.24

〈한국 5인의 작가, 다섯 가지 흰색전〉 동경화랑, 동경



참여작가: 이동엽, 허황, 서승원, 권영우, 박서보
당시 아시아 미술의 교두보였던 일본 동경화랑의 기획으로 흰색을 바탕으로 하는 70년대 초반 단색화 작품들이 소개되었다. 이 전시를 계기로 단색화의 위상이 높아짐.

1977.8.16~8.30

〈한국 현대미술의 단면전〉 센트럴미술관, 동경

참여작가: 곽인식, 이우환, 권영우, 김구림, 김기린, 김용익, 김진석, 김창열, 박서보, 박장년, 서승원, 심문섭, 윤형근, 이강소, 이동엽, 이상남 등

2000

제 3회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한·일 현대미술전〉

광주비엔날레 특별전으로 1960~70년대 한국의 단색회화와 일본의 모노하를 비교하는 전시가 열림. 이 전시의 영문도록에 'Dansaekhwa'라는 영어명이 최초로 명기되었다.

2013.10.17~10.20

런던 프리즈 마스터, 런던

국제갤러리 부스에서 단색화를 기획 출품하여 완판을 기록했다. 이를 계기로 해외에서의 단색화 열기가 뜨거워짐.

2014.8.28~10.19

〈단색화의 예술〉 국제갤러리, 서울

참여작가: 김기린, 박서보, 윤형근, 이우환, 정상화, 정창섭, 하종현
그동안 해외 미술시장을 상대로 단색화 작품을 출품해온 국제갤러리가 국내에서 단색화를 조망하는 전시를 개최함. 이 전시를 기점으로 단색 화가들은 국내의 대중과 컬렉터들로부터 '미술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을 갖춘 작가'로서 인정받게 됨.